



한국동물보호협회(KAPS)의 입양 방침과 동의서

목적

입양 프로그램 목표는 보호소 동물들에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황

입양할 동물들의 건강과 특성과 행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양은 주의 사항들을 동반합니다. 부디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된 반려동물이 입양자의 소유물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 입양된 반려동물로부터 사람들이나 다른 반려동물이 질병이 노출 될 수도 있습니다.
- 입양된 반려동물로부터 사람들이나 다른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입양한 동물이 너무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 과정

1. 입양신청자는 최소 18 살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입양에 찬성, 동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집주인의 동의 또한 얻어야 합니다. KAPS 에서 이러한 동의를 서명한 계약서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APS 는 동물을 입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잘 작성하신 후에 보호소로 오셔서 한두 번 정도 동물들을 만나보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후 입양 전 한달 간의 테스트 기간을 시작합니다. 한달의 입양 전 테스트기간동안에는 반려동물은 KAPS 의 소속이며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3. 테스트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동물을 입양하기를 원하시면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입양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반려동물의 소속은 입양자에게로 이전됩니다.
4. 입양자는 입양 계약서의 복사본을 받을 것입니다. 혹 입양 동물이 병력이 있다면



그에 관련 된 병력복사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후 7 일 안에 동물병원에 입양한 동물을 데려가셔서 검사 받으시길 권합니다.

입양되기 위한 동물의 자격

1. 건강한 상태에 있거나 질병이 있어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이 입양 대상이 됩니다.
2. KAPS 의 모든 동물들은 입양 전 중성화 수술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중성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린 동물의 경우, 건강을 회복하고 체중이 2kg 이상이 될 때 중성화를 하겠다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셔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후에 동물 소속이 입양자에게 이전됩니다.
3. 심각한 건강문제나 고쳐지기 어려운 행동 문제가 있는 동물은 입양 자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입양 후

1. 입양하신 분들은 가끔 KAPS 에 연락하셔서 입양된 반려동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입양된 동물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2. 만약 입양하신 동물을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들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저희에게 이 번호로 (053 622 3588, 평일 오후 2 – 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APS 의 직원들이 입양된 동물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3. 입양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양이나 개에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발톱 제거 수술, 꼬리 절제 수술, 귀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 성대 제거 수술, 힘줄 절제술 등을 불필요한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만약 입양자가 KAPS 에서 입양한 동물을 파양 하기 바란다면 KAPS 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시는 안 됩니다. 파양 하는 동물은 다시 KAPS 쉼터로 데려오셔야 하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입양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입양 방침과 과정에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위 신청인 _____ (서명)

(재)한국동물보호협회장 귀하